

東草藝術誌 發刊에 즈음하여



東草藝術
會長 張奎皓

東草藝術人들의 모임이며 文化創造의 産室이라고 할 수 있는 藝總東草支部가 생긴 지 10年이 되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作品活動과 發表를 통해 市民들 情緒의 故郷으로 자리잡고자 努力해 왔음에도 그동안 藝術專門誌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아마추어적 性格을 벗어나지 못했던 東草藝總이 이제서야 專門書籍을 出刊하는 藝術團體로서 認證을 받게되어 무척이나 感懷가 깊다.

地域藝術誌는 그 地域의 모든 藝術活動을 紹介하고 藝術集團의 特性을 表出하고 專門藝術人의 視覺에서 보는 創造 作業의 案內 等 一般市民이 모르고 있는 藝術創造의 깊이를 詳細하게 理解시키는 資料로 活用되는 것이다. 따라서 藝術誌는 創造者(藝術人)와 享受者(觀客 或은 讀者)사이의 理解와 信賴의 다리가 되어 좀더 높은 境地의 藝術世界로 接近하는 高次元의 先進文化圈을 形成해주는 媒介體라 할 수 있다.

高級藝術을 理解하는 사람들이 많은 社會가 先進社會라는 것이 東西洋 主知의 事實이듯 先進國이란 高級藝術이 市民속에 生活化되어 있는 社會라고 볼 때 이제 出刊되는 東草藝術誌가 分明 東草市民의 文化意識을 몇 次元 以上 成熟시키는 契機가 되리라 믿으며 藝術誌가 갖는 本然의 義務랄 수 있는 觀念의 發想轉換, 삶의 質的 向上 및 肯定的 思考의 定立, 아름다움을 가슴에 심는 方法 等を 提示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肯定的 價値로 認定받고 交流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되고자 한다.

이제 始作이지만 벌써 始作이라는 마음으로 出發하려 한다. 무슨 일이든 늦었다고 生覺하지 않고 남보다 빠르다는 生覺을 가지고 하면 恒常 氣分이 좋다. 언제나 肯定的으로 生覺하고 來年에도, 後年에도 繼續되어질 東草藝術誌를 생각하며 最善을 다해 市民들에게 사랑받는 藝術誌가 되기 爲해선 우리의 義務를 게을리 하지 않겠노라는 約束을 드리는 바이다. 오늘 이 冊이 나오기까지 心血을 기울여 編輯에 參與하여 주신 文人, 美術, 演劇, 演藝, 音樂, 寫眞協會 支部長님들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애써주신 모든분들께 고마움을 傳하고 싶다

2000年 12月

축 사

떨어지는 낙엽 속에 지나가는 가을을 느끼며朝夕으로 스산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는 겨울의 초입에 이번 예총 속초지부에서 200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여망아래 발간하는 「속초예술지」 창간(創刊)을 맞아 10만 속초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총 속초지부는 지난 63년 당시 사진작가였던 최구현(崔丘鉉)을 대표로 문학, 음악, 미술, 사진 등의 분과를 기반으로 단체형태의 “예총 속초지부”를 결성한 후, 1989년 4월 7일 윤홍렬(尹弘烈) 당시 회장께서 문인, 연극, 미술, 연예협회 등 4개 지부를 모태로 한국예총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10여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속초지역 문화예술인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속초예술지」를 창간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각 지부별, 단체별로 나름대로 알찬 내용을 담은 많은 작품, 서첩, 화첩, 사진집 등이 만들어졌으나 오늘 발간되는 「속초예술지」는 21C, “문화의 세기”를 맞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겠으나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이끄는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없이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속초예술지」 창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장규호(張奎皓) 예총 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부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총 속초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속 초 시 장
동 문 성

속초 미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미술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김 광 희

우리가 시작한 지방화 시대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예술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부분적인 시행이 되고 있으나 지역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문화적 지방자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역적 전통과 역사적 배경과 풍토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어지는 예술이 독자성을 확보하고 이를 국제적 안목에서 현실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예술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다.

미술의 지방화 즉 “속초미술”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작가 스스로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가치관 회복과 함께 새로운 표현 형상과 창의성 탐색, 국제적 동향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확립하고 내보이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속초미술을 자율적인 독특한 “단위미술”로 성장시켜 서울이나 세계 문화의 한 부분이나 지류 내지는 아류가 아닌, 뚜렷한 구성분자의 하나로 키워나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창조성을 극대화 시켜 속초미술을 세계속의 미술로 승화시키는 길을 찾아야 하며 우리 선배들이 지금까지 속초미술의 부흥과 전개를 위해 힘써왔듯이 우리들도 지역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진흥을 위하여 한결같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미술협회와 같은 단체나 그룹이 속초미술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작가 스스로의 작가 의식이 “속초미술”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술협회는 그 회칙의 “목적”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비록 어떠한 사조(思潮)나 예술 작품을 직접 창출해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공익단체로서 지역미술의 발전과 향상을 꾀하고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 등에 크게 이바지 하여, 속초미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속초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첫째, “청년작가들의 실험적 작가정신”이라 할 것이다.

자신의 예술관과 창작활동에 대한 의미부여는 장인적 전문성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과거의 어느 미술사를 보더라도 청년작가들의 실험적 시도나 분발없는 역사의 발전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아니었더라면 갈피의 출발은 상당한 애로를 겪었을 것이다.

“말타면 말구종 두고싶다”라는 속담이 있다. 제1호가 나올 때까지는 감히 넘겨다 보지도 못하였던 등단의 욕심이 모락모락 피어 오른 것이다. 제1호를 찍어내면서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1호를 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호 출판을 서둘렀다. 우리의 실적을 쌓으면서 작품 제작의 수련도 쌓으면서 중앙문단에 진출을 시도해 보자는 욕심이었다. 이번에도 외상과 월부 인쇄가 가능하다는 문화인쇄소 운영진의 양해를 받고서의 일이다. 그해, 그러니까 1970년 12월 12일〈갈피 제2집〉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그 당시의 우리 능력으로서는 좀 과욕이다 싶을 정도로 행사를 크게 벌였었다. 지금의〈주택은행 속초지점〉이 있는 자리가 1970년에는 중앙여관이라는 2층 건물이 있었고 그 중앙여관 지하실에〈청자다방〉이 있었다. 그 다방에서 기념회 행사를 가졌었는데 서울에서 조연현(趙演鉉), 이석(李石), 문덕수(文德守)씨 등 세분이 문학강연 연사로 참석하였다. 행사장은 초 만원이었고 그분들이〈갈피〉를 훑어본 소감이 아주 고무적이었다. 내용도 충실하고 책의 모양도 다른지역에서 본 동인지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렇게해서 우리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 봐 주는 한국문단의 중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작품에 열중하게 되었다.

역시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와 평가해 주는 분들의 공정성으로 1972년도부터 매년 한 두명 꼴로 중앙문단에 등단이 되었다. 앞에서〈남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남상이 양자강 같은 장강이 되어 중국 문화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갈피〉도 한국문단의 주류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나라의 역사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잡느냐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현 대한문국의 건국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건국 52주년이 조금 지났다. 그런데 갈피역사 30년, 짧은 역사는 아닐 것 같다. 앞으로도 갈피의 융성발전은 속초 문단의 융성발전이라고 본다면 제발 갈피가 그야말로 갈대 우거진 뗏뿌리처럼 길이길이 발전을 거듭하기를 다진다.

갈피 제 30호를 내면서



문인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윤 홍 렬

1969년 10월 3일 개천절이었다. 속초시 교육청 회의실을 빌어 이 지역 문학에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문학동우회의 결성 그리고 동인지 발간문제를 논의 하였다. 10여명이 모였는데, 다 상당한 열의와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저런 의견이 교환된 끝에 동우회의 명칭은 “설악문우회(雪嶽文友會)로 정했다. 속초문단 탄생의 남상(濫觴)이었다. 그 자리에 모였던 10여명이 발기인이 된 셈인데 그런 명칭은 붙이지 않았다. 일반 사회단체처럼 격식을 갖추고 회칙을 제정하고 하는, 외형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싫어서 형식적인 것은 생략했다.

그날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교원들이었다. 각기 직장 동료들에게 또는 이런 저런 기회와 인맥을 통하여 설악문우회가 탄생하였음을 알렸고 참여를 권유하고 하여, 그달 첫 일요일에 두 번째 모임을 역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참여 의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였는데 모두 22명이었다. 그 자리에서 동인지 간행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제호는 <갈피>로 하였다. 우리나라 동인지의 과거사로 비추어 볼 때 동인지 발행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각오에서 <갈피>라고 지은 것이다. <갈대가 우거진 동산이라는 뜻>이다. 갈대의 생명력이 끈질기다라는 특성을 본받자는 뜻이며 그 것의 번식력 또한 강인함을 채득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갈피>의 꽃을 피우자라는 의지력을 다지는 뜻이 담겼다. 실제적인 문제로는 동인지의 특성상 작품은 회원 각자가 쓰는 것은 물론이고 경비문제도 회비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월 회비는 1천원씩이었다. 우선 동인지 발간 원고를 수집하는 한편 회비를 모았는데 10월부터 다음해 3월분까지 쌓인 것이 10여만원이었다. 그렇지만 출판비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그리고 호화롭게 책을 꾸민다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그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작품을 담아내는 정도면 된다는 일념만으로 궁리를 거듭한 끝에 속초 시내 문화인쇄소(文化印刷所)에 가서 타협을 하였다. 10만원 정도로는 그 문화인쇄소에서 찍는다 할지라도 형편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다. 그 당시의 사장 김운기(金雲基)씨와 총무 김봉해(金鵬海)씨가 쾌락을 하여 주었다. 이 지역에서 처음 나오는 문학잡지인데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으라면서 쾌히 인쇄를 하여 주었다.

그때의 인쇄비가 25만원이었는데, 우선 10만원은 현금으로 내고 잔금은 형편이 돌아가는대로 내기로 한 것이니, 말하자면 월부 상환 형식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70년 4월에 <갈피, 제1호>가 출판 된 것이다. 우리 회원들의 손과 머리로 빚어낸 수확이었으니 대견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문화인쇄소의 김운기 사장과 김봉해 총무님의 이해와 격려도 감동적이었다. 그 분들의 그런 너그러운 배려가

산사(山寺) 에서

지고한 예술가는 궁극까지 이르지 않을 수 없고, 밝은 세계를.....

청호 옥 명 준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 강원미술대전 추천 작가
- 강원교원 미전 추천작가
- 한국미협 속초 부지부장
- 한국 미술협회 회원
- 현 강원도 정선교육청 장학사



어느 산사 석탑 앞에 잠시 머물러 보았다.

문득

“어리석은 자는 세속과 더불어 삶의 세계를 성립시킨다. 그들의 지식 수준은 진속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진속의 어리석음에 덮이지 않으면 지혜롭게 되고, 세속적 욕심에 물들지 않으면 깨끗하게 된다.

지고한 예술가(至人)는 궁극까지 이르지 않을 수 없고, 밝은 세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궁극에 도달하면 끊임없는 기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밝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끊임 없는 자기변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사에 접하면서도 외형에 구애됨이 없고 형태의 세계를 화면속에 처리해 가는데 어떤 작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먹을 쓰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자연스럽고 붓을 움직이는 것이 무위(無爲)의 경지와 같다”

석도(石濤)의 화론을 생각하면서.....



산사에서 120×90 / 수묵담채

아침을 위한 기도

서예 조형미·색채 아름다움 어우러진
묵(墨)에 의한 탈 장르 '석랍'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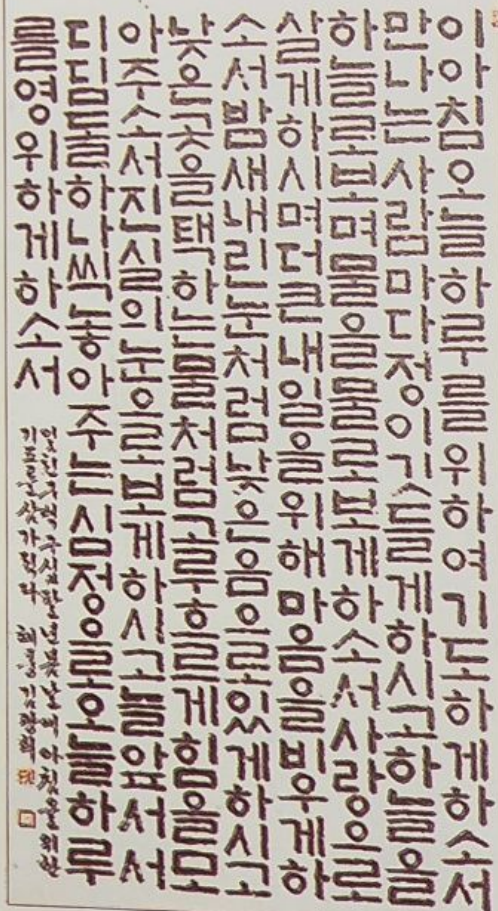


혜 풍 김 광 희

- 강원도서예가협회장
- 한국미협속초지부장
- '92강원도서예상, '97속초시문화상
-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 미술, 서예 지도표창 19회 수상
- 서양화 개인전 2회('69속초, '70춘천)

현대사회에 사는 오늘날 서예계에는 「墨(묵)에 의한 탈 장르」(Anti-genre with chinese ink) 운동이 서서히 일고 있다. 우리의 선비정신과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서예문화를 꽃피워야 할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서예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古法(고법)의 妙理(묘리)를 조형적으로 승화시킴과 아울러 지금까지 書藝(서예)=墨(묵)이라는 등식을 벗어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문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작가가 시도하고 있는 石蠟(석랍, paraffin wax)의 특성을 이용한 염색기법을 서예술과 접목시키는 「墨(묵)에 의한 脫(탈) 장르」작업은 이미 試作(시작)으로 발표된 '94 강원연묵 서예전, '94 대한민국 현대 서예대전 등을 비롯하여 '94~2000년 까지의 각종 국내 그룹전, 강원도 추천초대작가전, 환동해권 미술초대전(일본)등에서 石蠟(석랍)작업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주목 받아 메스컴 및 서예인의 찬사를 받았으며, 이 석랍작업은 필자가 처음 개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지의 서예인들이 기법전수를 위해 문의해 오고 있으며, 향토 미술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墨에 의한 탈 장르(Anti-genre with chinese ink) 석랍작업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파라핀(paraffin wax)을 重湯(중탕)하여, 墨脈(묵맥)의 농도와 같이 한 뒤 붓을 이용하여 서예술의 기법으로 문자를 표현하여 채색을 하고, 熱(열)작업을 하여 서예의 조형미와 색채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게하여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중탕된 paraffin wax를 붓이라는 매체로 서예의 기법 및 용필법으로 단번(一過)에 써내려 가야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색채미를 표현하기도 어려워 初心者(초심자)들이 시도하기에는 벽찬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아침을 위한 기도 70×200 / 한지에 먹, 혼합재료

둘째, "개방과 적극적인 교류활동"이라 할 것이다.

다른 국가와 전시회 교류를 통해 의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자신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창작 의욕 고취와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되며 "속초미술"을 세계속의 미술로 진입 시키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전문미술 전시장 건립"이라 할 것이다.

우리고장 속초에 문화가 싹트고 그 문화의 밑거름이 되는 35회의 설악문화제, 25회의 속초 미술협회전, 11회의 속초종합예술제 기타 연간 수 십회의 예술행사가 꾸준히 치러지는 성장을 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속초시는 변변한 전시문화 공간을 단 한 곳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 예술적 역량과 문화적 성장을 알리기 위해서 시각예술의 중요한 여건인 '전문미술전시장' 건립은 속초시 미술인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미술인 들은 가칭 "속초미술관" 건립을 위한 취지문 작성 배포와 가칭 "속초미술관" 건립기금 마련 미술전시회 개최 및 기타 단체 행동을 해서라도 이 지역에 "전문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겠고, 후일 이 터에 찬란한 설악문화의 꽃을 피워 결실을 다져갈 "시각 예술의 전시공간"인 "속초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초석이 되어 벽돌 한장을 쌓는 마음으로 이 대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속초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논리조차도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국수적인 주장일 뿐이며 집단 이기주의로 호를 위험성마저 있다는 점에서 속초 미술인 들은 거창한 담론이나 화려하게 포장된 미학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다 탄력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다양함을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때 속초미술의 만개(滿開)는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작가가 들려주는 나의 대표작

고전 '패로디 II'

- 시간속 인간의 모습 -



신 동 진

- 강원대
- 대한민국미술대전('83-'86)
- 구상조각전(동승미술관, 현대갤러리)
- 강원교원미전, 영북교원미전('84-)
- 속초미술협회전('84-)
- 춘천 MBC 현대조각전
- 현 속초여자고등학교

온 우주의 생명체는 시간의 관장인 크로노스의 의지에 따라 태어남과 소멸을 되풀이 하고 있다. 자신이 원인이 된 모든 생명을 시간의 낚으로 거두는 시간 종결자의 범주에서 역사 이래 인간은 그릇된 욕망의 최대치를 얻기위해 자신의 주장에 맞춰 타인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독선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주저함도 없이 오히려 떼떽하기조차 한 역겨움의 결과는 또한 시간 흐름에서 잊혀진다. 망각의 그늘에서 많은 이들이 신음을 묻어왔다.

98년작 '망각의 땅 유즈노 사할린스크 - 김씨'를 위해 몇번 습작을 거치며 김씨나 우무동씨, 장기찬씨, 김치 할머니의 흑백 사진집을 새롭게 보고 보았다.

그들의 시간 종결은 어떻게 나타날까?

또 하나의 작품을 숙제로 남겨두고 계속 드로잉하고 있다. 8절 스케치 북, A4공책에 또 연습장에

숙제를 일단 미루고 고전의 패로디 2점을 만들었고 여기서 다른 방향을 잠깐 보고자 했는데 '패로디 I' 옹크린 비에나 '패로디 II'의 기대안은 나른함 모두 헛된 욕망의 그늘에서 빼앗긴 슬픈현상이었다.

뺏는 자들의 시간은 왜 기억되며 크로노스의 낚은 그들을 어떻게 종결할까에 억울해 하며 또 다른 시간속의 사람들을 찾는다.

주변에서,
사진집이나
잡지책에서.....

고전 '패로디 II'

50×50×130

FRP



바다

항상 바다와 같은 가슴을 닦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 주 리

-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졸업
- 강원도교원미전 추천작가
- 강원도미술대전 추천작가
- 개인전 1회('96)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 속초미술전, 강원도전추천작가전 등
- 현 속초중학교 미술교사 재직

섬유가 가진 특징은 여러 가지 자유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에 있다. 그리고 재질감의 풍부함은 평면성과는 다른 다양한 기법들이 요구된다.

딱 섬유를 이용해 사라져가는 파도의 잔해들을 그라데이션 염색기법으로 처리해 보았다.

또 양모의 부드러움을 이용해 바다풀의 느낌으로 풀어 보았으며, 바다의 이야기거리는 조개들이라고 본다. 이 조개들은 조소의 기법을 이용해 석고형뜨기를 해서 그속에 한지를 넣어 똑같은 조개 모양을 떠 내었다.

바다의 표정을 작품에 담아 보았다.
달달한 마음을 풀어주는 바다.
바다 속의 아가지 기한 조개들의 어울림
싱싱한 바다의 풀들
알알이 부서지는 파도의 높고 낮은 파도의
합창소리를 섬유작업을 통해서 풀어 보았다.

항상 바다와 같이
넓은 가슴을 닦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

72×55

딱섬유, 양모, 한지, 염료

작품 「짚 9967」

드로잉 표현을 통한 실존의 흔적



박 흥 기

- 서울현대미술제(미술회관)
- 대전트리엔날레(대전시민회관)
- 국제교감미술제(경기문화회관)
- 파리가람아트초대전(파리가람아트)
- 뉴욕구겐하임미술관 개관기념전
- 성악국제비엔날레초대전
- 강원미술대전 금상('82)

나는 작품 소재를 우리 생활 주변 가까운 것에서 찾는다. 충분히 사용가치를 느끼면서도 흔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보이는 작업을 주로하였다. 80년대 나의 주된 작업은 하이퍼 리얼리즘(Hyper Realism)의 영향을 받아 감자 가마니를 쌓아 놓은 일부분을 극사실화 그리고, 항구에 배와 바다에 반영된 부분을 포착하여 작업하고, 탈곡하고난 짚단을 쌓아 놓은 부분을 트리밍하여 제작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90년대에는 토속적인 느낌의 마티에르가 있는 평범한 마대위에 painting knife로 굵은 scratch 기법으로 갈대나 잔디 혹은 짚의 형상이 그려지고 나브랭이 같이 뻗쳐 나오는 가는 선 끝에 현실 속의 스쳐 지나가는 암호나 기호 등 기억되어야 할 숫자, 잊혀져 간 숫자, 계획된 숫자들이 중첩되어 재현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여 복잡한 현대 생활인의 뇌를 자극 하게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지금의 작업 역시 스크래치 기법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어 작업의 주된 소재가 배경처럼 일부는 흐려지고 일부는 돌출 되어 그 기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낳게 한다. 또한 새롭게 등장되는 마치 색띠의 형상이 그려지고 그것은 일종의 틀 범위 등을 상상할 수 있게 하며 베일에 가린 희미한 기호로 표시되기도 한다.

무수히 반복되는 knife의 터치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존재하고 때로는 고민하는 인간의 현실 생활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 소비 문명이 쓸고간 흔적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 언어를 찾기에 앞서 너무도 체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문화의 양적·질적 난립에 무시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흔적들이 인간 자체를 거부하며 과거의 상황을 거부하고 흔적 자체로서 존립하기를 원하는 현대 산업 사회의 구조적 압력에서 더욱 허무를 느끼며 이러한 상황들이 나의 화면에서 수없이 표출되어 굵히고, 지워지며 새로이 그려진다.



작품 「짚9967」 / 캔버스에 아크릴릭, 오일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가) 연혁

- 1984년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인준

나) 일반현황

- 주소지 : 속초시 영랑동 속초시 문화회관 예충 속초지부 내

다) 주요임무 및 기능

- 지방연극예술의 향상보급 및 육성사업
- 연극인 및 연극단체 지도육성
- 연극의 지역간 교류사업
- 연극에 대한 출판 및 공연에 상반하는 저술사업



연극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박 영 미

라) 재임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비 고
지 부 장	박 영 미	연 출 분 과
부지부장	김 인 환	제작기획분과
사무국장	김 귀 선	연 기 분 과

마) 활동

속초의 연극사는 1930년부터라고 하며 『속초시지』, 1991, p1032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의 중앙인준은 84년 11월 30일 이다.

극단은 현재 서라벌예대 출신의 신원하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 청봉, 서울예전 출신의 김귀선씨가 이끄는 극단 굴렁쇠를 산하에 두고 있다.

극협의 정회원은 정기대학에서 극을 전공한 졸업출신자는 2년의 활동경과 후, 전문대는 3년후, 고졸은 5년, 기타는 10년 이상 연극활동을 한 후 협회가 인정하는 자로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속초 극협은 예충결성 후 의욕적으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행사가 대표적인데 속초에서 먼저 시작한 청소년 연극제는 전국단위 지역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으며 91년 8월에 5개학교가 참가한 1회 대회로 부터 2000년 6월 속초여고 등 13개교가 참가한 제9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상경력은 제2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서 속초여고가 이 대회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지도교사상, 최우수 연기상,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그 결과로 인하여 8명의 학생들이 전국대학 연극영화과에 특차로 진학하는 영광을 가져왔다.

또한 지역극 활성화의 목적하에 우수극단 초청에도 힘 기울였으며 대표적으로는 91년 제15회 서울연극제 최우수작품을 수상한 극단 춘추를 초청하고 극단미추의 남사당 하늘을 기획 공연한 바, 시민의 극예술 욕구 충족에 일익하고 있다.

극협은 강원연극제에 거의 해마다 작품을 출품 81, 86, 91, 96, 2000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연극제에서도 강원도를 대표하여 전국연극제에서 놀라운 성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88년 전국연극제 장려상을 비롯하여 남자 연기상(장규호)을 수상하였고 91년에는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비롯 연출상(홍현),



연기상(김귀선)등을 수상하였다. 96년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2000년에는 최우수 연기상(김귀선)을 수상하는 놀라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는 강원연극사 및 속초연극사의 기념비적인 결과로 영광의 금자탑으로 길이 기록될 것이며 지난날 속초 연극인들의 뼈를 깎고, 눈물을 머금은 노력의 소산이며 저력의 산실이다.

강원연극제에서는 연출상 이수곤(86년), 신원하(87년), 장규호(93, 96년), 김인환(95년), 김귀선(97, 98년) 등이 수상하였고, 연기상 장규호(85, 87) 김귀선(91, 96, 2000)이 각기 수상했으며, 90년에는 여우주연상으로 박영미가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다.

특히 지금은 민예총 소속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89년에 창단한 극단 파람불(대표 조수현)은 제9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때의 주요회원은, 조수현, 박영미, 김귀선, 지은미, 황현중 등이다.

바) 극단 소개

- 극단 청봉

한국연극협회로 인준 받기 이전에 활동했던 속초연극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으로서 84년 이전에 활동해오다가 2000년에 재창단한 극단이다.

신원하씨가 대표로 있고 단원으로는 노경민, 김형관, 김민주, 심오일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창단 기념 공연으로 모노드라마 "불효자는 옴니다" 를 공연했다.

- 극단 굴렁쇠

극단 굴렁쇠는 어린이 장난감의 하나로 둥근테를 굴렁체로 굴리는 놀이의 일종을 명칭으로 딴 것이며 김귀선씨가 대표로 전문인형 극단으로 창단 되었다(90년). 그후 성인 극단으로 탈바꿈하면서 강원도의 대표적 인 극단으로 자리 매김을 해가고 있다. 11년 동안 30여편의 작품을 공연하였고 단원으로는 정경숙, 최문경, 문일완, 김준수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타 극단

이외에도 극단『태』, 극단『추』, 극단『시나브로』등의 연극단체가 있었지만 대부분 창단 공연 후 소멸되었다.



연극을 보는 일반적 시각에서의 극 예술가 고찰

모든 예술인들이 전부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의 예술이든지 그것을 쉽게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볼때 경험적 증거에 입각한 어떤 이론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필연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기술하게 될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술하지 않는다.

어떠한 예술적 실천이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따라서 미리 규정된 어떤 이론을 뒤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예술의 목표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변화는 오히려 예술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그러한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기술과 모든 예술가들의 선택적 자료로 나타날 뿐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나열하는가 하면 다음의 두가지를 꼭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첫째 예술(이것은 연극 예술에만 국한시키고자 한다)의 종합적 내지는 총체적 창조 행위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진지하게 음미해보고자 하는 뜻이고, 둘째 관객들이 지금껏 잘못 이해하였거나 모르고 있을 수 있었던 연극 예술의 관극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연극이란 순수 예술 행위자들(극작, 연출, 연기, 무대, 음향 등)의 공동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예술 행위자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외관적 형식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예술 작품이란 감각 혹은 상상을 통해 우리의 知覺을 위해 창조된 표현 형식으로서 그 표현하는 것은 곧 인간의 감정이다. 이 감정이란 단어가 좀 광범위한지 몰라도 그것은 신체적 감각이나 고통이나 안락, 흥분과 평온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정서, 혹은 지적인 긴장 또는 의식적인 인간 생활의 지속적인 情調(연극에서 Felling-tones라고 하는데)에 이르기까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 작품 등은 일련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예술 작품이란 물질적이 아니며 가상적 감정의 심상(心象)을 제시하고 이러한 가상이 그 예술작품을 일상적인 세계로부터 추출해 내는데 기여하는 것



연극협회 속초지부
고문장 규 호

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술들은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객관화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구체화 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표현적이다. 우리가 느끼는 예술의 아름다움이란 외관이며 결코 재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상의 것이다.

예를 들어 캠퍼스 위에 칠해진 물감의 얼룩이나 무대 위 연기자의 소리 혹은 동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창조해 내는 가상 혹은 그 외관이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 행위를 먼저 이해하고 연극무대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진정한 무대예술의 깊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관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모르고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연극 예술이란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극작가 한사람의 예술이 아니다. 물론 배우 한사람의 몫도 아니다. 극작가의 희곡과 희곡을 형상화하여 극의 개념과 성격을 창조하는 연출가, 그것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는 배우, 그리고 배우의 연기를 뒷받침하는 무대미술과 조명, 음향 등...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용어 "극예술가(Dramatic artist)라는 말이 연극인들에게 주어지는 명칭이랄 수 있다. 배우만이 연극의 전부가 아닌 것이다. 물론 배우는 "무대의 꽃"이라 불리우며 극의 최종 목표를 표현해 낸다. 그러나 모든 스태프와 같이 "극 예술가"로 불리워져야 한다.

결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되어서는 한편의 극예술이 창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편의 연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연극의 창조 작업에 참가한 모든 "극예술가"의 면면을 배우처럼 이해하고 배우에게 보내는 갈채만큼이나 성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관객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관객 스스로가 연극의 구성요소라는 점이다. 연극예술이란 관객이 객석에 있을 때만이 연극 예술로 평가 될 수 있다. 관객이 없는 공연이 공연 예술로 평가 될 수 없음을 볼 때 그 공연 예술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야 할 관객이 객석에 앉아 있으면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관객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당황함을 느낄 때가 있다.

관객은 돈을 내고 (혹은 초대되었던 간에) 공연을 보기 위해 좌석에 앉는 순간부터 한편의 극예술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공연을 보고 즐기거나 고생한 "극예술가"들에게 박수만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관객의 의무(?)를 저 버리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직 창조된 극예술을 보고 듣는 "시청"의 과정을 넘어선 지각자(知覺者)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은 감각을 통해서, 다시 말해 눈과 귀를 통해서 감각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무대 위에 펼쳐진 극예술을 나의 지각을 통해 극예술가들과 같이 지금 무대위에 펼쳐진 연극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연극의 최종 목표에 같이 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의 연극이 끝나면 관객은 홀연히 떠나 버리고 오직 극예술가들만이 남는다. 아니다. 비록 극장은 떠나도 그들과 같이 작품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사랑하는 관객이야말로 위대한 관객인 것이다.

다음은 연극 예술의 참여자인 “극예술가”들을 각 분야별로 고찰하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한편의 연극에 기여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극작가를 이야기해보자. 그는 한편의 작품 속에 전체적인 윤곽을 결정하는 최초의 선택을 행한다. 그것은 여타 예술가들(연출, 연기, 무대미술, 음향, 조명 등)의 선택 범위를 한정하고 최종적인 작품의 지배적 형식이라 할 만한 것을 수립하는 것이 관계로 되어있다.

그는 기본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plot으로 조직하여 허상적 인물을 구체화하며 등장 인물의 내적인 행동을 첨가한다. 이러한 선택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구체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작품의 초보적인 의미(import)가 결정된다.

극본 안의 기술된 대사들은 등장 인물의 정신과 육체에 내재하는 행위로부터 가정적으로 결과된 행위를 극작가가 제시하는, 다시 말해서 선택적 결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또 다른 극 예술가에게 극본을 전하는 것이다.

누군가 희곡을 “문학적 기록”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기실 전술한 내용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극작가가 완성해 놓은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극예술을 듣거나 볼 수 있는 무대 위의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극작가는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배우의 몸짓, 동작 혹은 장면의 세부 사항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문(지문이라고도 한다)은 자주 무시된다.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극본의 언어 속에 잠재되어 있어야 하며 극본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상상력과 생명력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이런 것을 지문으로 첨가한다는 것은 극작가의 솜씨가 모자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극작가가 연기자의 상상력을 위한 여지를 하나도 남겨 놓지 않고 확고하게 미리 계산되어진 극본을 내어놓는다면 그 연극은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 되고 만다.

극작가를 제외한 모든 극 예술가들은 극본 속에서 기본적인 행동의 결정이라든가 Plot의 구조화라든가 무대의 구상, 극본이 잠재한 행동의 세부사항 등을 예술적으로 선택할 특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연극인들이(연기자들의 공동 작업을 위해 얼마만큼의 예술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이나)라는 것으로 위대한 극작가를 선택



하고 있다. 따라서 극작가는 전체적인 윤곽을 결정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범위를 스스로 한정 지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극작가가 제시한 것이 또 다른 극 예술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는 또 다른 극 예술가의 작업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극 예술가 그룹중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출가다.

그는 한마디로 작품의 요리사라 할 수 있다.

극작가가 언어의 언급술사라면 연출가는 작품의 맛과미를 모두 요리하여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는다. 극작가의 손을 떠난 극본의 창작 과정은 연출가의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둔, 다시 말해서 상상력과 창의성 등 다양한 선택의 대안들을 생각해 내야 한다.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서 연출가의 맛과美的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극작가가 요구하는 주제와 표현 양식이 있을지라도 연출가는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 선택에 의해 창조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비창조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술의 경우(이것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 개의 사과를 놓고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릴 경우 어떤 이는 붉은 색으로만 표현할 것이며 또 어떤 이는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혹 다른 사람은 노란색이나 녹색으로만 그릴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사과를 그린 그림이라고 부르듯이 연극 연출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출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얼마만큼의 예술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가장 진지하고 진솔하게 배우들의 예술혼을 일깨워 주는 임무를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배우 뿐만 아니라 무대 미술과 음향, 조명 등 여타의 극 예술가들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작품 속에 몰입할 수 있는 최대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연출가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극 예술가들은 희곡의 무대화를 위한 시도에 창조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나 행동, 미술, 조명, 음향의 창조 뿐만 아니라 희곡을 구체화하는 비추론적 개념에도 기여해야 한다.

예술이란 감정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가들에 의해 창조된 표현 형식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구체화된 감정을 여타 종류의 감정(비 예술적)과의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동적 의미(vital import)라고 부른다.

흔히 논술은 소통되는 의미(communicated)라고 하지만 예술 작품은 전달되



는 의미(conveyed import)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vital Import는 작품 속에 객관화된 느껴진 삶(felt life)의 요소이며 그것이 곧 예술 작품이 지니는 위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창조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극예술가 중에서 극작가와 연출가, 무대미술, 음향과는 달리 가장 마지막 부분(무대)의 창조자가 바로 배우다.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한편의 연극이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Motive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를 일컬어 흔히 “연극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배우가 한편의 연극이 막이 오르기까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연극대본을 받아 들고 읽고, 외우고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무대위에서 움직이고 소리지르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그들은 연극무대 최후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직접적이고 엄숙한 의무가 있다.

배우는 극작가와 연출가의 선택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창작한다. 여기에서의 범위란 희곡의 연습과정에서 배우에게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극작가의 선택이 연출가에게 극본을 통해 전해지는데 반해, 연출가는 배우에게 언어로 전하는 것이다.

물론 배우는 극작가와 연출가 양자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기 대사외의 극본 전체를 연구한다. 그것은 바로 극작가의 예술성과 연출가의 예술성을 이해하고 자기의 표현방식을 정립하여 자기의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배우들에 의하여 창조된 무대가 바로 완전한 하나의 예술로 호칭이 되는 것이다. 결국 막이 오르는 순간에는 배우들이 창조한 예술이 극작가나 연출가의 추정한 범위보다 훨씬 뛰어난 상상력으로 관객앞에 보여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들은 누구나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버나드쇼는 말하기를 “어떤 작품이든 처음 연습에서는 작가와 연출가가 배우보다 각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훌륭한 배우들은 공연되는 무대위에서는 자신들의 반복적 연습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 작가나 연출가에게 어떤 다른것을 가르쳐 줄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라”고 했으며 작가와 연출가는 “배우와 함께 공동작업하고 있는 동료예술가”로 간주해야 한다고 간파했다.

난 이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론의 여지를 가지지 않는다. 일부 연출가는 연출에 의해 좌우되는 연극을 고집하고 있으나 난 그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결국 최후의 책임자는 배우이며 그들의 노력없이는 연극 예술로서의 창조예술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배우는 무엇인가? 작품이 지닌 언어의 전달자인가? 아니면 표현



자인가? 둘다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 감정(회·노·애·락)을 인간처럼 섬세하게 표현하는 동물이 없다. 인간이 지닌 감정의 깊이는 그 폭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오직 인간만이 지닌 이감정 혹은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배우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 하거나 표현하는 것일까? 과연 감정이란 것이 구체화하여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개의 관객이나 일부 무대 경력이 많지 않은 배우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술이 표현하는 것은 실제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관념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즉 작품 속의 언어가 실제적인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것들의 관념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작품 속에 주어진 매체(언어)안에 명시된 형식을 관객에게 그 뜻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실제적인 감정이 아니라 바로 감정의 관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는 그 감정의 관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달, 창출해내는 예술가인 것이다.

무대위의 배우가 몸과 소리로 창조해낸 것은 실체가 아닌 객관적인 감정이며 그것들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표현해 낼 때 훌륭한 배우, 무대가 되는 것이며 관객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다시 말해서 한편의 무대예술을 관람하고 거기에서 얻는 스스로의 성취감과 대리만족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하여 배우는 피를 말리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감정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한 정확한 절제와 확실한 표현, 그리고 자기 배역의 사회성과 인간성에 동화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이 뒤따른다.

그러하여 하나의 새로운 객관화된 무대인물이 태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한 무대예술가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다.

어떤 아름다움인가? 심성의 아름다움이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심성의 아름다움은 예술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종교가 요구하는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인간을 위하는 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대뒤에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예술가 집단인 Staff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스태프라면 공연에 직접 관여하는 무대미술, 음향, 조명기사를 비롯하여 기획, 제작, 진행, 홍보 등 비창조 부분의 참가자 전원을 호칭하지만 여기서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무대미술, 음향, 조명과 같이 공연현장에서 막이 내리는 순간까지 무대감독과 교감하는 예술가들을 얘기하고자 한다.

앞서 얘기 했듯이 연극에서의 극예술가들이 하는 공동작업이란 다름 아닌 감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극예술에 있어서 구체화되는 감정의 개념이라는 것이 배우의 언어나 몸짓에서 표출되긴 하지만 사실 배우의 모든 언어, 동작의 리듬과 고저 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무대장치이며,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음향효과와 극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조명효과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야들이 결여 되어 있다면 그 연극은 무미건조하거나 관객에게 어떤 정서적 충격효과를 전달하는 데는 분명 실패하게 된다. 배우의 행동은 대사, 감정,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대효과란 배우의 행동을 둘러싼 장면설정, 대·소도구, 조명, 분장, 음향효과 그리고 음악과 같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은 모두 연극적 가상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무대위에 등장한 배우가 움직이거나 말하는 방법이 무엇을 뜻하며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 만큼이나 무대장치에 있어서도 무대의 형태, 사용한 재료, 위치크기, 세트 등 채색한 색채 등이 배우의 연기와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 만큼이나 진지하고 피를 말리는 창조과정이 뒤따른다. 조명 역시 배우의 표정과 연극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정확한 극적 분위기를 표출하고자 노력한다.

일사불란! 아니, 널리 표현하자면 완벽 무비를 추구한다. 100명의 사람이 모여 어떤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박수를 친다고 하자! 몇 번 연습하면 100명이 동시에 “짝”하고 단번에 소리를 낼 수가 있다. 1초도 안되는 시간에 동시에 소리를 맞출수 있다. 그러나 연극은 상황이 다르다. 막이 열리는 순간 배우와 스텝은 0.01초를 다투는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긴장하며 1시간 이상을 그 0.01초의 오차와 싸우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빠듯하고 실수하면 그 연극은 관객에게 생명력을 상실하고 만다.

우리의 관객들은 우리 극 예술가들의 완벽한 조화와 뛰어난 상상력 속에 스스로 속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연극이 끝났을 때 힘찬 박수를 보내는 관객은 사실 완벽한 눈속임을 경탄하며 가상을 현실로 완벽하게 속여준 극예술가들을 칭찬하는 것이다. 관객은 한편의 연극 속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며, 천하를 호령하고자 하며 완벽하게, 멋있게 죽는것도 꿈꾸고 있는 것이다.

0.01초의 실수로 관객의 꿈을 채워주지 못할때 우리의 관객은 분노한다. 따라서 배우와 스텝은 막이 내리는 순간까지 긴장한다. 지휘자가 없어도 딱 맞아 떨어지는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

차라리 처절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른다.

지금까지 얘기한 극예술가들의 면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연에 임하여 준다면 좀더 가깝게 무대예술을 이해하리라 믿으며 다음에는 「연극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연변조선족의 대중예술



연예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김 동 만

4월 이른봄 나는 조선족 위한 「훈춘시가요제」 심사를 위해 연길공항에 도착했다.

기대한 대륙 중국

그 속에서 우리민족이 숨쉬는 중국 속의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이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 한글 그리고 우리말, 분명 우리네 사람들이다.

연길에서 차를 타고 2시간 포장도로와 비포장 길을 번갈아 달렸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어두운 밤 길 옆으로 보이는 초가집들은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온 동화속과 같이 우리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어둠 속에 두만강이 보인다. 강 건너 북녘땅, 바로 우리 나라 북녘땅이다.

그런 길로 우리는 훈춘시에 도착했다.

인구 25만 정도의 조선족 자치시이다.

길옆으로 보이는 간판들 모두 한글이다.

호텔 종업원(그곳에서는 복무원이라 함)

모두 우리말을 잘하는 우리네 사람들이다. 너무 친근감이 든다. 그렇게 중국땅에서 하루를 보낸 이튿날 아침 봄비는 뿌연 타향의 하늘을 어제와 같이 가득 메웠다.

가요제 예비 심사, 그곳에는 많은 조선족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요제 출연진들이 한사람씩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연변조선족, 그곳에도 우리 대중가요가 그들의 가슴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족 대중가요인 연변 가요가 그들의 한 많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목도 타향의 봄, 타향의 여름, 타향의 달밤, 모두가 그리움으로 표현되는 한중의詩들이다. 그들은 분명 그것이 고향이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그곳을 타향이라 표현한다.

조선사람으로 중국 땅에서 살기 때문인가 보다.

그들만이 부르는 연변가요 타향이란 제목들, 가사에는 면면히 서글픔과 한이 가득 서린 단어들로 가득하다.

눈물 젖은 두만강 그 노래가 생각난다. 그렇게 살아가는 조선족을 보며 아름다운 설악산, 바다, 호수, 모두 갖춘 속초를 생각해 본다.

그곳 거리풍경은 TV를 통해 많이 알려진 모습 그대로이다.

가요제 심사를 치른 다음날 나는 우연히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가족, 친지들 모두 한복을 입고 축하하러 오는 모습. 우리 풍습과 똑같은 잔치집 분위기이다.

결혼식 사회자가 우리네 무성 영화시대 변사와 똑같은 목소리로 사회를 본다.

"알 찾기"라는 것이 있었다. 더운 밥 두 그릇 속에 닭알 한 개씩을 숨겨 두었다. 그것을 젓가락 한 개로 한번에 명중시켜 찾는 것이다.

한번에 찾아 빨리 먹어야 자식을 잘 낳고 잘키운 다는 풍습이란단.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뜨거운 알을 먹는 신부는 창피한 모양이다.

참으로 재미있는 풍습이었다. 그렇게 나는 24명의 가요제 본선 출연진을 뽑고 한국으로 돌아 왔다.

2개월 동안 편곡에서 연습 그리고 조선족을 위한 선물, 우리 회원들은 많은 고생을 하며 본선 준비에 열중했다.
6월 하순 벌써 초여름으로 접어든다.

우리는 속초항에서 동춘호를 타고 16시간만에 러시아 항 자루비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넓은 초원을 1시간 버스를 타고 달렸다.

그리고 중국 훈춘시에 도착하고 훈춘가요제 본선 준비를 시작했다.

드디어 6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며 준비한 노래자랑 공연날이다.

1500여명이 입장할 수 있는 훈춘시 영국원은 입추의 여지없이 관중들로 가득찼다.

공연장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는 소리가 비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회자가 속초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혹시 발음과 억양의 차이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는 당초의 불안감은 기우에 불과했다.

사회자의 진행, 그리고 노래 모두가 속초와 똑같은 수준의 공연이다.

그렇게 성대한 공연은 끝이 났다.

그들 속에 자리잡은 대중문화.

연변조선족 대중가요는 분명 그들이 살아가는 힘이요 정신이다.

분명 그들은 조선말을 하며 조선인의 정신으로 거대한 대륙 중국에서 굳건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경제적인 빈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고 조선사람으로 살아가는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위해 도와주신 훈춘 시장님, 훈춘 문체부 국장님들 그리고 속초 시장님, 속초시 문화공보 실장님, 본행사를 협찬해 주신 속초시 각급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묵묵히 본사업을 지원해 준 연합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악에 실은 음악에의 꿈



음악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심 언 흠

서 론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대신 삶의 무력감과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인간성 회복을 위한 예술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것이다. 우리 고장 속초는 설악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도 그 자연에 매치된 메리트가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어 성시를 이루는 광경이 내 고장 속초에서도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 천혜의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꿈의 파라다이스를...

이제 설악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음악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설악 공거리 연주장, 청초 호반 연주장, 예술공원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금부터 1세기 후 우리 후손들이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세계에 명성있는 낭만의 고장,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 "설악에 실은 음악에의 꿈"을 짧은 문장으로 나열코자 한다.

본 론

1. 환경 및 배경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자그마하지만 큰 대륙의 장엄한 자연 환경보다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2. 프로젝트

1) 기 간: ①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으며 계획 및 설계부터 완공을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②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의 변모할 세계의 상황과 설악의 모습을 잘 연구하여 추진한다

2) 시민의식: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인으로서의 의식전환을 하여 향후 후손들이 누릴 행복을 생각하며 역사적인 일에 참여하여 보람을 느껴야 하겠다

- 3)메리트: ① 설악공거리 연주장: 거리의 악사들 연주 및 소규모 무대연주로 현재의 소공원과 권금성이 매우 적당하다. (구라과의 대부분 국가들은 아름답지 않은 장소이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있다)
- ② 청초호반 연주장: 대규모 객석 야외 연주장에서 연주하며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 우천시에도 연주를 한다. (오스트리아 빈의 시청 앞 연주장과 같은 맥락이며, 빈 시청 앞에서는 매일 연주를 한다)
- ③ 영랑 예술공원: 미술을 위주로 하는 갤러리, 거리 화가 활동, 조각 공원 등을 만들어 영랑 호반과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음악과 연계시킨다.
- ④ "설악 음악 콩쿠르"를 활성화하여 유럽,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세계 음악 콩쿠르 수준으로 격상시킨다.(현재 음악협회 속초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3. 행 정

음악인을 육성해야 한다. 천혜의 자연 속에 음악의 상아탑은 조화로운 것이다. 우리 강원도에 강원 예술고가 탄생했는데 물론 강릉도 조건이 좋지만 설악 기슭에 그 학교가 자리를 했다면 더욱 아름다운 세계적인 유명고가 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을 유치하는 일이다. 설악 기슭에 자그마하지만 꿈의 궁전 같은 캠퍼스만 만들어진다면 이 고장의 예술활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적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 행정가들은 주민들과 합심하여 대학 유치에 전념해야 하겠다.



예상되는 결과

- 1) 단기적 : 학교 시설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그 외의 시설은 큰 부담이 안가는 사업이다. 어느 단계에 오르기가 지는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나 1세기를 내다보는 원대한 사업이다.
- 2) 장기적 :
 - *가치관 : 먹고 마시고 즐기는 즐거움에서 보다 고상하고 이상적인 즐거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 정립될 것이다.
 - *지역경제 : 원화에서 달러가 많이 유통되는 세계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 *국가의 관심 : 세계인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와 투자가 있리라 본다.

결 론

한 작은 지역 예술인이 현실 물정을 모르고 만들어 낸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두고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업, 일시적인 수입에만 신경을 쓰는 관광 사업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제는 우리도 '지방'에서 '세계'로 눈을 돌려, 보다 거시적으로 내 고장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보다 희망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 사고를 갖고 함께 동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의식개혁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유치운동, 과감한 행정적 투자, 추진위원회 발족, 전문가와의 공청회 등 철저한 계획 아래 사명감을 갖고 일을 시작해야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전 음악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자극적이고, 속된 음악만을 제시해 준다면 보다 더 높은 것을 갈망하는 인간들의 생리에 영혼은 더욱 공허해지고, 사회는 타락할 것이며, 아름다운 낭만의 고장 설악은 점점 병들고 쇠락할 것이다.

하루 빨리 전세계 속의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후손들은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예술 명소를 실감하며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



사진술과 창작 『이론과 사례』



속초사진협회
회장 최 홍 영

〈들어가는 글〉

사진술의 원점은 광학성의 렌즈와 카메라 메카니즘에 의한 정말 복사성에 있다. 사진화상이 감광재 위에 빛으로 그려지는 비선형(非線形) 형상이고, 카메라 없이도 화상을 제작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카메라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인화 기법에는 포토그램과, 여러이미지를 화면에다 결합시키는 포토몽타쥬, 콜라쥬 등이 대표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사진은 카메라에 의한 사진과 카메라 없이 그려지는 두 기법의 조화는 사진예술에서의 불변의 원칙이다.

사진은 사진술의 기법과, 표현하려는 발상에 따라 '기록'도 되고, '예술'도 된다. 예술이란 지성과 감성으로 받아드리는 시지각(視知覺) 형상(形象)의 아름다움(진, 선, 미, 추, 성, 권, 리, 애)의 표출을 뜻한다.





1. 사진술의 예맥

냉혹하리만치 사실성 기록의 기능을 지닌 사진술의 발명이 1839년 세상에 공포되자, 다가오는 사회에 어떠한 공기(公器)로 그 모습이 반영될 것인가를 여러모로 우려한 바있다. 그 후부터 오늘날, 사진은 시대적 증인으로서의 공익성과 가족 간에 즐기는 취미나 오락, 또한 자아현시라는 예술성 등에서 실용적인 기록과 독자적인 표현으로 세론(世論)을 환기시켰으며, 시·지각 조형 공간 예술의 개념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예맥(藝脈)을 정립시켜 왔다.

사진은, 쉽게 접근되다는 대중적인 속성으로 일상적인 시각 이미지로서 환경 변화등의 상황을 전달한다는 역할을 하여왔다. 표현면에서는 진솔한 기록의 '다큐멘터리' 사진을 제외한 예술 사진'의 대부분은 회화적 표현 양식과, 전통성에 의존하였다. 흑백사진에 채색하거나, 기존 사진의 이미지를 콜라주 하는 등은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며, 상황의 설치, 그림을 그려넣기 등 미술의 양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진에다 미술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1. 회화적 사진(繪畫的寫眞 Pictorial photography)은 사진도 회화처럼 예술성의 사진이 된다고 하여, 회화적인 양식을 빌어서 제작하는 사진을 말한다. 사진사에서는 1850년대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 까지를 회화적 사진시대라고 한다.

2. 사진의 미학상의 표현양식 : 일반적으로 회화적 사진이라고 하면, 독자적인 사진술에 의하여 표현되는 '예술성의 사진' 또는 '조형성 사진'을 의미한다. 역사상에 표현된 양식을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 보이는 대로 찍는 방법의 사진 : 대상물이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묘사되며, 주제의 내용이 피사체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사진의 주제는 피사체가 있는 상태를 보는 사람에게 직접 시각경험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주제의 선택과 사진상의 기법 처리는 사진가의 정신적인 반응이나, 독창적인 해석과, 기술상의 훈련도 등의 응용에서 예술성이 발휘된다.

나. 그림으로 찍는 방법 : 촬영되는 사진이 오로지 아름답게 보이려는 데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양상으로서, 사실 그대로의 것 이상으로 표현하려는 추지에서, 작가가 피사체에 애하여 해석하는 것, 또는 표현 형식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빛나가는 초점의 이용이나, 수면에 반영된 경관의 촬영 따위)이 특징이다. 이처럼 보이는 대로 찍는 사진과 그림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두가지 표현양식이 미학상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 당시의 사진가들이 사진술을 최대로 활용하여 인생, 사회, 사물들을 기록하는 창의적 의지가 집약(集約)된 결실이며, 오늘날의 상업 광고 사진 등에서 변천된 그 유래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

3. 따라서, 회화적 사진에서는 적극적으로 연출도 하고 조작도 한다는 것이 목적 수단이 되며, 신기한 소재라든가 새로운 시각상의 소재의 발견과 선택만이 주요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상력이나 감수성이 빈약한 사진가에 있어서는 표현하려는 목적 의식이 불분명한 채, 마구 채색을 한다든가 질감을 변질시키는 등 진부(陳腐)한 회화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

회화적 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법의 완벽함과 정확한 화면구성(構成)력이다.

그것은 주제가 되는 이미지 구성이 미리 계산되어야 한다.

반면에 기록을 위주로 하는 사진가에게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점이 화면의 구상이나 상상력이다. 회화적 구성 또는 화면 구도는 필요한 내용의 요소를 모두 모아서 배열하고, 당초의 개념을 충실히 표상화(表象化)하여, 미의 완성을 꾀하는 기술과 능력이 종합이다.

4. 현대적 표현 : 1960년대 이후 혁신적인 사진술의 위상은, 광학예술(光學藝術) 또는 팝 아트, 포스트 모더니즘, 포토리얼리즘, 에어브러쉬아트 등의 미술분야에서 사진술을 소재로 하는 이색적 표현양상으로의 변용(變容)이다. 사진에서는 단말적이나마 이러한 미술의 표현 수법의 도입이다. 잡지나 광고 등 상업성 사진에서 회화주적인 사진술의 기본 수법을 바탕으로 제작이 된다. 이러한 제작의 다양한 취향은 작품이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진 상사의 세계로 유도하여 사색의 초점을 추상성으로 시각화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래서, 사진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술을 통하여 미적 표현을 시도하려는 사진가는 대체로 회화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형식과 장식(裝飾)가치를 전제로 미를 추종하는 방편에서 회화적 표현인 예술사진의 기법이 도입된다고나 하겠다.

5. 한편 회화적 특성을 사진에 도입하려는 노력에 반대하면서 '회화적 사진'을 애써한다. 기호란 의미를 지닌 상징성 부호라고 할때, 색채도 기호로 비유되며, 추상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감성의 것이다. 사진에서 소리를 형상으로 표현하려면 소리 변별력의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하는 발음체의 기구나 물체를 묘사(기호화)한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이는 음악에서 묘사 음악과 순수음악의 구별이 있듯이, 소리도 구상성인 새소리, 종소리 따위와, 악기와 연주하는 악음(樂音)에 대비된다.

추상성이란 개별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개념으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 일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정신 작용을 말 한다고 할 때, 가령 사진 속의 포도인 허상을 보고 군침이 도는 생리 현상은 심리성의 연상 작용이다. 사진에서 비현실의 상황을 설치하거나 연출한다 함은 이러한 개념의 전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심상세계 이미지를 투영시킨다는 표현방법이다.

속초사진협회 연혁

속초사진협회 결성 1995. 7. 17 초대회장 최이권 외 17명 창립

제 1회 회원전	1995. 10. 8 ~ 9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최이권 외 12명
제 2회 회원전	1996. 3. 20 ~ 24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최이권 외 11명
제 3회 회원전	1996. 5. 25 ~ 30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최이권 외 12명
제 4회 회원전	1996. 10. 11 ~ 15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최이권 외 16명
제 5회 회원전	1997. 2. 8 ~ 11	눈꽃축제(종합경기장전시실)	최이권 외 15명
제 6회 회원전	1997. 5. 19 ~ 25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최이권 외 16명
제 7회 회원전	1997. 10. 4 ~ 10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최이권 외 16명
제 8회 회원전	1998. 2. 8 ~ 11	종합운동장 전시실	최이권 외 17명
제 9회 회원전	1998. 7. 11 ~ 15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최이권 외 15명
제10회 회원전	1998. 10. 1 ~ 3	속초수복탑야외 전시장	최이권 외 17명
제11회 회원전	1999. 2. 4 ~ 7	눈꽃축제(종합경기장전시실)	최홍영 외 17명
제12회 회원전	1999. 5. 31 ~ 6. 6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최홍영 외 15명
제13회 회원전	1999. 9. 13 ~ 10. 30	동명항생선회축제 행사장	최홍영 외 15명
제14회 회원전	2000. 1. 27 ~ 30	종합운동장 전시실	최홍영 외 15명
제15회 회원전	2000. 6. 8 ~ 6. 12	종합운동장 전시실	최홍영 외 22명



1953년의 영금정 - 사진작가 최 구 현

2000년도 사진협회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눈꽃축제 사진전 및 최이권 개인 사진전

제5회 설악눈꽃축제를 기념하여 제14회 속초사진전이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속초종합 운동장 2층 로비에
서 개최되었으며 최홍영 회장을 비롯 회원 15명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아울러 금번 전시회에는 사협 전임 회
장인 최이권 개인사진전도 함께 개최되었다.

최이권씨는 지난 십 수년간에 활동한 작품을 한데 모아 처음 갖는 개인전으로 지난날 속초의 옛정취와 향수
어린 작품을 다수 출품하였다.

■ 제 15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 사진협회 주관으로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6월 8일 부터 6월 12일까지 도민체육관이 개최되는 속초
시 종합운동장의 2층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협회 회원 15명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최구현, 동문성, 정창
영, 최준영, 최홍영, 김성호, 황동석, 황병진, 김호정, 원준택, 김성학, 강영진, 김형관, 황광희, 홍창배 등이
출품하였다.

■ 속초사진 협회 회원들이 제1회 속초관광 사진공모전에 출품하여

김성학, 추동의 울산바위의 가작 외 입선 1점,

최홍영 울산바위의절경II,

김성호 해맞이정자의 일출,

황동석 영금정등대의 일출,

황병진 영랑호와 카누, 목우재에서 본 속초시 야경 출품작 등이 입선을 하였다.

회원주소록

직책	성명	자택	휴대폰	주소
고문	최구현	633-2062		속초시 중앙동 497-96
고문	동문성	633-3171		속초시 중앙동 469-6
고문	장창영	633-4175	011-363-4175	속초시 중앙동 478-43
고문	최준영	632-8028		속초시 교동 657-9 9/1
회장	최홍영	633-2029	011-373-0998	속초시 중앙동 476-9 명성칼라
부회장	김성호	633-5887	011-379-5884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109
감사	황동석	633-3725	011-364-3725	속초시 교동 773-1 13/5
총무	황병진	635-6379	017-707-6379	속초시 교동 773-1 13/6
	김성학	637-1271	011-215-5429	속초시 교동 대우A 101-201
	김형관	636-6561	017-371-1338	속초시 조양동 부영A 507-310
	최상후	633-4125	017-371-3667	속초시 중앙동 493-1 제일사진관
	최용철	633-5553	011-375-9578	속초시 청학동 642-64
	황광희	681-2361	011-248-2361	고성군 간성읍 하1리 6-7
	홍창배	672-3158	011-371-3153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0 만불상수배
	장광순	682-3996	011-364-7996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3번지 1리 5번
	엄한국	633-9111	019-363-3076	속초시 조양동 부영A 902-307호



제1회 속초관광 사진공모전에 속초사진협회 회원들 작품을 출품하여 다음과 같이 입상하였다.

• 금상: 최 낙 민 (예총감사)



• 가작: 김 성 학 (사진협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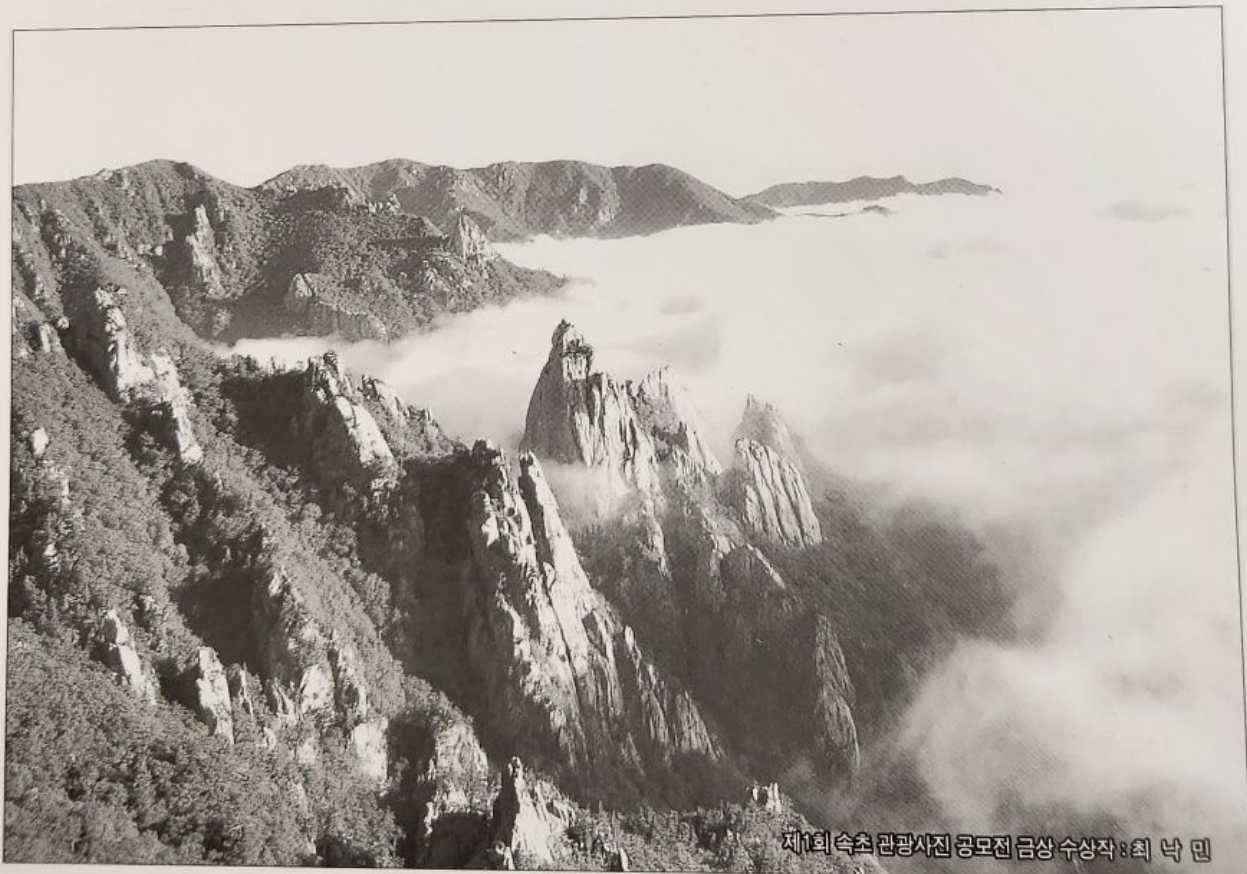
• 입선: 김 성 학 (사진협회 총무)

최 홍 영 (사진협회 회장)

김 성 호 (사진협회 부회장)

황 동 석 (사진협회 회원)

황 병 진 (사진협회 회원)



제1회 속초관광사진 공모전 금상 수상작: 최 낙 민

설악사진 동우회

2000년 9월 21일 사진동우회 「설악사진 동우회」가 창립하여 속초예총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속초예총은 속초사진협회와 설악사진 동우회가 같이 활동하게 되었으며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체명 : 설악사진 동우회

■ 회원명단 : 회 장 - 오원구

부회장 - 김영걸

총 무 - 홍성철

회 원 - 장규호, 김호정, 조성현, 임호길, 김경환, 고명자, 김용준, 김보영, 박세인(이상 12명)

■ 창립일자 - 2000년 9월 21일

■ 창립목적 - 진실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함.

■ 활동상황 - 매월 월례회때 마다 회원 사진 평가회를 실시하여 사진실력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의 야외 촬영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이 친목을 도모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

1차 야외 촬영회 - 2000년 10월 15일 한계령 용소폭포, 인제 방태산 가을 풍경 촬영

2차 야외 촬영회 - 2000년 11월 12일 양양군석교리일대 농촌 풍경 촬영

■ 전시회 - 2000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창립기념 회원전

(장소 :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예총속초지부 현황



예총 속초지부
사무국장 박 종 성

예총 속초지부의 역사는 1989년 중앙인준 이래 올해로 12년째이다. 하지만 1960년대 비인준의 예총 속초지부의 역사를 더한다면 40여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축제인 설악문화제는 현재까지 35회째를 개최하고 있다. 이 설악문화제가 1966년 제1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당시 지역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예총 속초지부가 주관하게 되면서 설악문화제가 대동하게 된다. 당시 예총 속초지부장인 최구현씨는 설악산을 관광명소로 전국에 홍보하고자 설악문화제를 탄생시켰으며 당시 사진공모전을 비롯한 문화예술사업 및 산악행사로 꾸며지게 된다.

이렇듯 영북지역 최대의 축제로 자리잡은 설악문화제의 제1회 때부터 예총속초지부 소속 예술인들이 문예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왔으며 이는 속초가 시로 승격함과 함께 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1989년 예총 인준 이전에 이미 4개의 단일협회가 결성된 상태에 있었다. 그중 가장 앞선 협회가 문인협회이다. 문인협회의 탄생이 있기까지는 설악문우회란 문학동우회가 있었다. 설악문우회는 1969년 윤홍렬, 강호삼, 박명자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설악문우회의 활동과 역량은 자연스럽게 1977년 문인협회 속초지부 탄생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설악문우회는 곧 문협으로 이해될 정도로 설악문우회가 우리지역 문학발전에 영향을 끼친바는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겠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하는 문학동인지 갈매가 바로 설악문우회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발간하여 수많은 지역작가를 배출한 근원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문협의 탄생은 문학활동을 가속화시켜 사회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1회째를 개최한 학생백일장을 비롯 주부백일장을 해마다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거리 시화전, 시서화 도예전, 문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문학활동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어 미술협회는 1980년 9월에 인준을 받는다. 미협 지부장은 최호규, 김영복, 김광수, 이동명에 이어 현재 지부장은 김광희씨가 협회를 이끌고 있다. 미협의 가장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미협속초지부전이 올해 25회째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미협은 인준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11회째를 맞이하는 전국학생 미술실기대회와 주부미술 한마당, 국제아동 미술교류전, 설악전국서예백일장 등의 우수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함은 물론 그외에도 강원도 서예가협회전, 각종 기획전 유치, 세미나 개최 등으로 영북지역미술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5개장르(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에 38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또한 연극협회는 1984년 중앙협회 인준을 받았다. 극협의 전신은 극단 청봉극회가 초창기 속초시의 극예술을 선도한다. 청봉 극회는 1977년부터 신원하씨를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 연극협회 인준 직후까지 왕성한 극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극협 탄생으로 단원의 대부분이 극협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휴면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이후 청봉 극회는 2000년 9월 신원하 모노드라마를 무대에 올려 부활공연을 가지고 지난날의 영예와 재도약을 다짐하게 된다. 또한 극협 탄



생은 현 예총지부장을 맡고있는 장규호의 주도하에 도약을 맞게 되는데 당시 연극협회 지부장을 맡으면서 개발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재까지 극협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다. 지부장 재임시에 강원도청소년 연극제를 비롯 설악아동연극제 개최, 강원연극제 유치, 서울연극제 최우수작 유치 공연, 워크샵 개최 등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회운영으로 산하 극단들의 혁혁한 수상실적 등 속초를 일약 전국 최고의 연극도시로 자리매김 한데는 협회소속 배우들의 개개인적 역량과 조직운영 등의 뒷받침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사려된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해외공연에도 힘을 기울여 95년 미국 그레샴시 공연에 이어 98년 중국 훈춘시 공연 등을 펼쳐 속초의 우수한 극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양하는데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현재 연극협회 지부장은 30여년간

지역 무대를 꾸준히 지킨 박영미씨가 맡고 있으며 극협 산하에 극단 청봉과 굴렁쇠의 극단을 두고 있다. 극단 굴렁쇠는 90년대 창단 현재까지 10여년간 활동하면서 강원최고의 극단으로 성장하였으며 속초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극단대표는 김귀선씨가 맡고 있다.

연예협회는 1987년 12월 중앙인준을 받는다. 인준과 동시에 본격적인 자선공연을 개최 군부대 위문공연, 노인위문잔치 등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한기학 초대 지부장에 이어 김동만 지부장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사업인 청소년 건전가요제와 설악문화제때 설악시민가요제 등의 사업을 통한 협회원의 결속과 대중문예 보급에 매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속초에서 개최된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 당시 연예인초청공연, 시민위안의 밤, 각종 엑스포기념 대중예술사업은 물론 올해 제35회 도민제전 기념사업 등 나날이 바빠 움직이는 협회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 조선족 위안 훈춘시 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사업도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이상의 문인, 미술, 연극, 연예협회의 단일협회를 기반으로 1989년 4월 예총속초지부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예총의 탄생은 지난날 협회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단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자리잡는 계기는 물론 지역예술인들이 한곳에 집중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른다. 개별사업들은 자연스럽게 5월 종합예술제로 집중시켜 영북 최대의 순수예술제 「속초종합예술제」가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예총 임원들로 활동하는 대부분은 '89년 예총을 탄생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예총 초대 지부장으로는 소설가 윤홍렬, 2대 김광수화백, 3,5대 김영복화백, 4대 시인 사상철 현재 6대 지부장은 연극인 장규호씨가 이끌고 있다. 예총사무국장은 초대 장규호, 2대 연극인 김형관, 현재 사무국장은 91년 4월 이래 본 필자가 맡고 있다.



예총탄생 후 문예진흥기금 및 속초시의 체계적인 수원 등에 힘입어 해마다 50-60건의 다양한 문예사업을 개최하고 있으며 영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펼치는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 음악협회가 인준을 받아 예총협회 소속에 합류하기에 이른다. 음악협회는 결성 직후부터 청소년 음악콩쿠르, 설악 청소년음악회, 음협 정기연주회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음악콩쿠르는 영북지역 최고의 콩쿠르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또한 음협에서는 올해 설악엔젤스 합창단을 창단 하고 이어 설악기타 합주단을 창단함과 동시에 속초리코더 앙상블 연합연주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음협산하에는 현재 이들 3개 단체가 활동중이다. 이들 단체들과 올해 한·미 음악교류 사업 등을 전개한 바 있으며 내년 미국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음협 사무국장인 원영백씨가 도래미 예술기획을 운영, 년중 5-6건의 음악관련 공연물을 개최 지역 음악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음협은 1991년 지부 결성 후부터 지금까지 심연흠 지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한 1995년 속초사진협회가 결성되었다. 예총협회중 유일하게 중앙인준을 받지 못한 단체지만 현재까지 15회의 회원전을 개최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 지부인준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설악사진 동우회가 결성되어 사협인준 목표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 속초사진협회는 최이권 회장에 이어 현재는 최홍영 회장이 맡고 있으며, 설악사진 동우회는 오원구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설악문화제 탄생에 이은 문인협회부터 사진예술 활동까지 계략적인 예총 속초지부의 연혁을 살펴해보았다.

명년 4월로 예총속초지부가 만12년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10여년간 지역민과 더불어 예술호흡을 함께 했다고 자부한다. 자부심과 긍지만큼이나 많은 어려움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200여 예총인들과 향토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민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예총이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예술지 창간호에 예총 연혁을 살펴본 까닭은 지난 40여년 전에 그러했듯이 예총 초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새로운 각오로 매진함에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지난날의 경험과 문예 비전을 가지고 예총인들이 활약한다면 21세기 예향 속초를 꽃피우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예총에게 거듭 기대해도 좋을 성 싶다. ㄸ



제5회 눈꽃축제 시민가요제 (문인협회)

제11회 학생백일장 (문인협회)

祝 詩

새벽이리니

김 춘 만

동해로 붉은 해 솟구쳐야만
새벽인가.
이게 진정한 새벽의 징조.

설악이 뿔대로 웅장하고
동해가 핏줄처럼 드나드는 땅
혼 불로 타오르는 정신들 모여
저마다 제 색깔 꽃을 피우네.

문인, 미술, 연극, 연예, 음악, 사진
속초예총 12 년을
푸른 나무 같은 기운들
한데 어울린 순수의 몸짓.

거친 벌판 내지르는 정열의 불길
이게 새벽이리니.

속초의 한 가운데 서서
가슴에 간직한 우리만의 내력을
향기로 내뿜어
여기 한 떨기 꽃으로 피워내는구나.
여기 천 송이 꽃으로 피워내는구나.

이게 이 땅의 새벽이리니.

속초예총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 소	전문분과
회 장	장 규 호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 309 - 810	연 극
부 회 장	김 광 회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 1-505	미 술
"	심 연 흠	속초시 교동 로얄맨션 A-101 767-207	음 악
간 사	윤 홍 렬	속초시 교동 현대2차(아)203-1304	문 인
	김 춘 만	속초시 금호동 서울대명2차2-211	문 인
	옥 명 준	속초시 교동 럭키(아)3-206	미 술
	정 봉 재	속초시 교동 동부(아) 102동 803호	미 술
	박 영 미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106-1003	연 극
	김 인 환	속초시 장사동 우림연립 다-203	연 극
	김 귀 선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 507동1201호	연 극
	김 동 만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 310-1303	연 예
	박 재 근	속초시 청학동 9/5	연 예
	최 경 복	속초시 청학동 10동 1반 634-26번지	연 예
	임 수 철	속초시 교동 제일연립 나-304	음 악
	원 영 백	속초시 동명동 513-110 성우연립 205	음 악
	최 흥 영	속초시 중앙동1/5 명성칼라	사 진
	김 성 호	속초시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109	사 진
	황 병 진	속초시 중앙동 속초시청 문화공보실	사 진
고 문	김 영 복	속초시 교동 설악현대(아)102-1101	미 술
"	사 상 철	속초시 고성군 거진읍 오봉리	문 인
"	김 광 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75	미 술
감 사	김 동 만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 310-1303	연 예
"	최 낙 민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72-23	사 진
사무국장	박 종 성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 309-1305	-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조기폐지” 및 “공공기금” 전환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입장표명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대한 입장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문예진흥법 제19조(기금의 모금)에 따라 영화상영권, 무대예술공연장을 비롯하여 미술관 등 관련 장소의 입장료에 부과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말까지 모금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느닷없이 준조세 폐지라는 개혁적 차원에서 2001년에 조기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이다.

-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하게 지원되고 있는 진흥기금은 현재도 부족한 상태이다.

- 조세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그대로 문화예술계로 재투자되는 진흥기금은 경제논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문예진흥기금은 순수문화예술계의 소중한 지원수단이다.

- 순수문화예술은 모든 분야에 대한 기본이며 원동력이면서 시장논리에 의해 생존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렇기에 공공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 우리나라도 문화부 예산이 정부예산의 1%가 실현되었다고는 하지만 체육, 문화산업, 관광, 관련기관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 실제로 혜택 받는 이들에게는 경제논리로 볼때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이는 문화예술을 살려나가는 소중한 불씨이자 원동력이다.

3. 문예진흥원의 기금 4,500억원 조성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 기금 4,500억원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우리 문화예술계의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기금모금중단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축소를 가져올 뿐이다.

4.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국민의 정부'의 기조정책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대원칙이 무너지면 우리 문화예술계는 좌시할 수 없다. 모금 폐지를 조건으로 국고 지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정부의 개입은 불가하게 될 것이다.

- 기금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객관성 등은 문화예술계의 감시만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당연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자율성 침해는 결코 받아 들일 수가 없다.

5. 문예진흥기금은 준조세라기 보다는 기부금 성격의 재원이다.

- 문예진흥기금은 일반적인 강제 부담금과 같은 준조세로 볼 수 없고,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문화예술계의 유일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중한 재원이다.

6. 문예진흥기금 모금은 당초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 이미 2004년 말에 폐지하기로 한 모금제도를 앞당길 때의 단점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을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포함한 위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 전환에 대한 입장

문예진흥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해 공공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기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객관성 유리라는 명분하에 공공기금화를 추진하고 있다.

1.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되고 있는 현행제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공공기금 전환을 용납할 수 없다.

- 이는 정부 정책 시각에 따른 규제적 요소 또는 끼워 맞추기라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 역시 번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된다.

2. 기획예산처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 현재의 자율성을 침해함은 물론 다양한 경쟁과 창의성을 훼손하게 되며 사업운영의 경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3. 사업계획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길다.

- 현재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지원절차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게 된다.

- 문예진흥원은 승인 받은 사업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조속한 지원여부를 확정해야하나 공공기금화할 경우 사업계획 및 승인이 매년말을 기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실제 지원 결정은 매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 아울러 기타 관련 행정업무 및 절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행정간소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4. 투명성과 객관성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지켜 나갈 것이다.

- 현재에도 문화관광부, 국회 상임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인 받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인들로 구성된 심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계는 문예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인 바, 이를 명분으로 공공기금화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5. 문예진흥기금은 자율적 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역행하는 공공기금 전환을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성 립